

불교학 전공자 진로

최근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동국대 취업지원팀은 2001년 8월과 2002년 2월 불교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8%라고 밝히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78%라는 수치가 빛좋은 개살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졸업자 67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 7명과 군입대 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은 59명. 이중 취업자는 46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스님 27명

대에 비하면 형편이 좋은 편이다. 2001년도 불교학부 졸업자 총 17명 가운데 진학자를 제외한 11명중 4명이 진각종 종무기관이나 불교언론계 등에 취업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실시된 2002학년도 취업조사에서도 진학자를 제외한 11명의 졸업생

올 불교학부 졸업자 51명 전공 무관 취업 중단·불교단체서 흡수 제도적 장치 필요

과 군법사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 취업자는 13명이다. 특히 이들 순수취업자들 중 조계종 포교원에 취업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으로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지원팀이 지난해 11월 2002년 8월과 200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교대학 취업현황조사에서도 졸업(예정)자 71명 가운데 스님 17명과 군법사 2명, 외국인 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거의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96년 설립된 진각종립 위덕대는 동국

중 진각종 종무원 3명, 조계종 소속 사찰의 성보박물관 등 총 7명이 불교계에 취업했다. 위덕대 졸업자가 동국대보다 불교계에 취업을 많이 한 이유는 진각종이 실시하고 있는 종비장학생제도 때문이다. 종비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학비면제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종단기관에 근무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다. 현재까지 1,0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중앙승가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후 활동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80% 이상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책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32%(200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과 비교한다면 낮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일반 행정이나 보조 등 일부 한정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중심에서 배제돼 있다. 실제로 4개 종단 중 과장급 이상의 여성 종무원은 1명(태고종)이고 계장 1명(조

여성인력 활용 현황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 하나가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여성의 섬세한 감각이 중요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성 신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

대부분 단순 업무, 과장 승진 기회 제한적

여성 차별 관행 능력 발휘 기회 막아

는 불교계에서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조계·태고·천태·진각종 중앙 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재가 여성 종무원은 전체 직원 153명 중 69명으로 약 45% 정도다. 조계종의 경우 종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에 근무하는 재가 종무원 77명 중 여성은 28명이다. 계약직 6명을 제외한다면 여성 종무원은 22명(30%)인 셈이다. 태고종 종무원은 재가 종무원 13명 중 재가 여직원이 8명(61%), 진각종 중앙종무기관은 38명 중 13명(34%)이 여성 종무원이다. 천태종은 종무원 직원 25명 중 80%에 달하는 20명이 여성이지만 모두 일반 사무직이고, 5명에 불과한 남성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

계종), 주무 1명(진각종)에 불과할 정도로 상위직일수록 불균형이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장급 이상은 스님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와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성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포교사단에 등록된 포교사는 전체 2,000여 명 중 40%가, 국제포교사는 출·재가를 막론한 전체 143명 중 84명(58%)이 여성이다.

경력 4년차 종무원 김 모 씨는 "여성을 차별하는 조직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교 전공자 취업률 저조·현장 활동기는 부족

- 불교계 인재양성과 활용실태 -



◇정토회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했던 '동일 대화마당'은 회원들의 자질함양 및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됐다.

불교계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은 4곳에 불과하다. 불교 NGO 활동가 양성기관은 정토회,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출하는 곳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하다.

국내 종교계가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사회복지학과는 모두 159곳. 4년제 대학 83곳, 특수대학원 45곳, 전문대학 31곳 가운데 불교계 교육기관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 위덕대, 금강대 등 4곳뿐이다.

이 중,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금강

사회단체 인재육성·활용

활동가 자체양성 정토회 등 2곳에 불과

불교계 복지시설에 다른 종교인도 10%

대를 뺀 이들 교육기관이 연간 배출하는 인력은 1백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이 450여 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NGO 단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토회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불교계 복지시설 및 NGO 단체의 종사자는 대략 5천 80여 명 정도. 복지시설에 5천여 명, NGO 단체에 8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시설 한 곳당 종사자수의 경우, 복지는 15명 이하와 16~20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불교 전공자(종립대 출신 또는 불교교양대 이수자 포함)는 대략 2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교 복지시설의 경우, 타종교인도 1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의 인력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교계 일각에서 즐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불교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불교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종사자들의 근무만족도는 상당히 낮다. 낮은 보수, 직업의 장래성 불안, 과중한 업무 등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이직

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NGO단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태가 종사자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장학제도 미비

물질적 보시 우선 풍토에 인재양성 뒷전

신행단체 장학금도 단기지원에 편중

불교 장학사업 대부분이 불우청소년을 물질적으로 돕는 단순 보시 차원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지속적인 활동을 받고 있는 불교계 장학회 및 장학재단 30곳을 조사한 결과, 신행단체들의 장학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에만 편중돼 있고, 미래 불교계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나 불교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선우 '향산장학회', 진각종 '회당장학금', '화엄종 장학금', '구산장학회' 등 4곳에 불과했다.

향산장학회는 불자 청소년 단체 지도자

급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육성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산장학회의 경우 불교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논문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교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진각종 '회당 장학금'이나 '화엄종 장학금' 등은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이나 학인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불교 장학회나 장학재단의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맑고향기쁨계의 '길상화 장학회', 우리선우의 '선우장학회', 부산 내원정사의 '석암장학회', 영남불교대의 '마야장학회' 등 26개 장학회는 장학학생 선발 기준이 결혼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였다. 이들 경우에서 보듯 불교계 장학제도는 인재 발굴 및 육성하는 육성제도보다 일종의 복지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스콜라십 제도처럼 일정 기간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교계 장학사업 관계자들은 말했다.

다른 종교계의 인력양성

종교별 교육관련 기구 및 단체의 인력양성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톨릭이 가장 조직적이다.

가톨릭은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와 '17개 교구별 교육국'을 두고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7개의 가톨릭대학교와 43개 남사 수도단체, 93개 여자 수도단체, 사제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성직자 배출과 평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회장 대주교)는 11개 대학교, 5개 특수학교, 7개 신학교, 38개 고등학교, 27개 중학교의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평신도 교육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 가톨릭 중고등학교연합회, 가톨릭교육협회, 교구별 유아교육연합회와 초등교육자회, 주일학교 등을 통해 복음교육을 실시한다.

원불교 역시 중앙총부 산하 교정원에 교육부를 두고 인재 발굴 및 육성, 교육연구 및 행정지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교육부 산하에는 예비교무교육기관인 원광대 원불교학과, 영산원불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성직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원광대, 원광보건대, 영산대학교 7개의 고등학교, 4개의 중학교를 통해 교도를 양성하고 있다. 또 교육부 산하의 교육심의회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운영사업회 등 5개 장학회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종파가 많은 개신교계는 연합회 형태의 교육관련 기구나 종파별 교육위원회를 통해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한신대 등 4년제 정규대를 비롯한 270여 신학교와 산하 교육시설의 교회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기독교교육협회와 기독교교육학회,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기독교교육정책협의회 등이 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신학교육은 1970년대 이후, 각 신학교육에서 기독교교육학과를 설치해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유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주일학교 등을 통해 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종교의 성직자 양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의 경우 270여 신학교육에서 한해 1600여 졸업생이 배출돼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직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가톨릭의 경우 전국 7개의 가톨릭대에서 평균 120여명이 예비신부가 이곳을 졸업, 관련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사제품(수사, 수녀 제외)을 받는다. 원불교의 경우 종립대학인 원광대를 졸업하고 대학원대학교 2년 과정을 마쳐야 교무로 활동할 수 있으며, 평균 50여 명이 교무가 된다.

한명우·김재경·박봉영
김두식·강유신·김철우·여수령 기자